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0년 10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www.mssamok.cathms.or.kr

복음 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복음 나누기 7단계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
눅시다.”

6단계 모임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하여 토의한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

소공동체 기도

사랑의 근원이시며 친교의 모범이신 삼위일체의 하느님!
저희들은 초대 교회 신자들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소공동체 운동을 활발히 실천하여
친교와 봉사와 증거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오니
성령의 은사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복음 선포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소공동체 살림살이

소공동체 실천사항	
본당 공지사항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5번 “사랑의 하느님” 1,3절을 부릅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사랑으로 일치하게 해 주소서.

— 주님, 저희가 주님 나라의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감 사



자원봉사



질 투



핑그림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마태오 복음 20장 1절-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아홉 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삯을 주겠소.’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에도 나가 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하고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자 집을 나선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다섯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을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생각만 일했는데도, 피약별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 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 없을 때는

- 일할 시간에 관계없이 똑같은 품삯을 주시는 주님의 처사에 대하여 나누어 봅시다.
- 주님의 처사와 달리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빈익빈 부익부’에 대하여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일본의 ‘료안사’라는 절에 가면 정원 한쪽 귀퉁이에 엽전모양의 조각이 있는데 거기 양각으로 새겨진 한자 글귀가 인상적이어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이 조각의 용도는 손 씻는 물을 받는 물통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는 오유지족(吾唯知足)이라고 새겨져 있다. 글귀 그대로 하면 오직 나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인데 남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의 자신으로 만족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오후 다섯 시에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밭 임자에게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한 말에 참담한 심정이 묻어난다.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며 품삯을 받을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참담한 심정을 헤아렸더라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 할 수 있는 하루가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지 깨달았을 것이다. 참된 행복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날들이 주어졌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기다린다.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함시다.

(실천사항을 정한 후 본당 공지사항과 기타토의를 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함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461번 “나는 주님 포도밭” 1,3절을 부릅시다.

'I am'

가정에서 온 가족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진행합니다.

가정기도를 시작하며

진행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중의 한 사람이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 주세요.

말씀과 함께

진행자 한 사람이 다음의 성경말씀을 읽어 주세요.

† 마태오 복음서 6,28-34.

세상 걱정과 하느님의 나라

28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
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30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
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
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31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
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32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
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34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
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진행자 이번엔 다 함께 소리 내어 다시 한 번 읽어요.

(다 읽은 후)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나누기

- ① 성경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 ② 다음 문장의 빈칸을 완성해 봅시다. 그리고 서로의 답을 비교해 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 중 가장 걱정되는 것은 다.'

함께 생각하기

진행자 오늘의 주제는 'I am'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다함께 살펴보세요.

나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과거를 살아갈 때
과거의 실수와 후회 속에서 살아갈 때
너의 삶은 참으로 힘들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나는 있었던 자로서 이다(I was)’가 아니기 때문이다.
네가 미래를 살아갈 때
미래의 문제와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
네 삶은 참으로 힘들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나는 있을 자로서 이다(I will be)’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너의 삶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
내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나는 있는 자로서 이다(I am)’ 이기 때문이다.”

— 헬렌 말리코트(Helen Mallicoat)의 시(詩)

생각 나누기

- ①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 ② 지금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3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가면서 발표해 보세요.

❖ 함께 실천해요!

진행자 다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도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도 바로 오늘뿐입니다.
오늘을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오늘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오늘입니다.
오늘처럼 중요한 날도 없습니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도 없습니다.
어제의 미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입니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일 년이 되고,
오늘이 30,000번 모여 일생이 됩니다.

-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 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 중 미리 걱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 다.’

❖ 가족회의

진행자 가족회의 시간입니다.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사항이나 논의가 필요한 일들, 가족 친지들의 생일, 축일 소식이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가족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자녀에 대한 훈계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평화의 인사

진행자 지금부터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방법은 온가족이 돌아가며 포옹하고, 부모님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 가정기도를 마치며

진행자 다함께 손을 잡고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소공동체와 단체 - 상호보완적 관계

소공동체가 하기 어려운 일은 단체에서 맡습니다.

소공동체가 하지 못하는 몇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레지오의 고유한 신심활동, 청년활동, 노동사목, 여성연합회, 주일학교 운영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어떤 단체나 연합회에서 맡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단체 모임들도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서는 소공동체에서 할 수 없는 활동들을 수행합니다. 본당 단체들은 소공동체가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 일을 맡아 수행해야 합니다.

단체에서 하던 일 중 소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소공동체에 맡깁니다.

예전에는 가정방문이나 병자 방문 같은 사목활동을 단체에 소속된 몇몇 사람들이 맡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동네의 환자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자주 돌보아 줄 수 있는 소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방문합니다. 세례 때에 받은 평신도 사도직으로 이런 활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방문하거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꼭 어떤 단체에 소속될 필요 없이,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소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소공동체와 단체는 형제 관계입니다.

본당 단체들과 소공동체들은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며 상호 보완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희생

과 겸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단체들마다 고유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런 카리스마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체를 활성화 하는 데 모두가 협력하되 그들의 활동을 소공동체가 담당하지 못하는 범위로 조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체 구성원도 지역 소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입니다.

큰 단체에 소속된 단체 구성원일지라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소공동체를 이루는 한 구성원이 됩니다. 어느 구역에서든지 세례 받은 신자들은 모두가 소공동체 구성원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큰 단체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통해 소공동체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행하는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2단계 지도자용 지침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사랑, 증거의 삶

강광자 리더아(옥봉동본당 구역분과장)

옥봉동성당은 84년의 역사를 가진 본당입니다. 긴 역사가 말해주듯이 전 교우들의 90%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보니 소공동체 구성원 또한 같은 사정입니다. 저희 본당은 5개 구역 2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첫 수요일 소공동체장 모임을 갖고, 월 1회 반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지만 연로하신 반장님을 비롯해 알차게 운영을 하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젊은 층은 신도시 아파트 단지로 이동을 하고, 신설 본당으로 전출을 가는 일이 많아 그나마 오래된 본당의 전통을 이어 가시는 분은 기도 부대인 어르신들의 저력으로 보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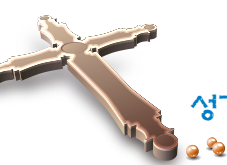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가정방문 봉성체가 있는 날입니다. 차량봉사자와 신부님, 수녀님께서 함께 오시지요. 봉성체가 있는 반의 반장님은 방문가정에 미리 도착하여 집안 정리와 청소를 깨끗하게 해드리지만, 때로는 숨쉬기조차 힘든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매달 봉성체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과 성탄 때에는 가정과 병원을 방문하여 신자 분들 뿐만 아니라 같은 병실에 계신 외인들까지 빠지 않고 선물을 전달합니다.

선물을 받은 환자들의 기뻐하고 좋아하는 표정을 보며, 받는 것 뿐 아니라 주는 것 또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반원들이 특별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 함께 모이고 있지만 반모임에 결석하지 않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기에 책임감과 결속력이 커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살아가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 서로 형제적인 사랑을 나누며 활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소공동체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성경을 읽다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많은데요?

사목국

지난 호에서 성경은 성령의 감도로 기록되었기에 원저자는 하느님이시고,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진리이며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보면 내용이나 표현에 현대의 과학적 역사적 사고방식으로는 모순되거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럴 때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가르침에 오류가 없다는 말이지, 그 가르침의 방식이나 표현에까지 오류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느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마치 성경저자들이 하느님의 영이 불러 주시는 말씀을 서기처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알아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저자들이 성령에 의한 하느님의 특별한 충동으로 그 메시지를 기록하게 될 때, 그들이 지닌 구체적인 인간조건이나 능력이나 자유가 변경되거나 말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또한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 표현되는 한 기록자의 지식과 취향이나 그가 속한 시대적, 지역적, 문화적, 사회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방식이나 시대적 지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자 하는 하느님의 메시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사회적 영향을 거쳐서 나온 미숙한 표현들이나 자구(字句)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들려주시고자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읽어야 합니다.

모든 글은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그 쓰여진 목적에 맞게끔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책은 과학책 읽는 방식이 있고, 소설책은 소설책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과학책을 소설책처럼 가볍게 읽거나 또한 허구인 소설책을 과학책처럼 이것, 저것 따지며 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인생이란 만나면 어차피 헤어지기 마련임을 절실히 통감한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목적으로 쓴 수필에 대하여 역사서나 과학서처럼 따지고, 분석하며 읽으면 곤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주어진 목적에 따라서 읽고 거기에서 진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구원경륜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인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어떤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며 읽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면 말씀を通して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에는 한 치의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명 순교자 정 베드로·방 프란치스코

－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밥상이 또한 섭리의 은혜요 －

김길수 · 사도요한(전 대구가톨릭대학 교수)

사마리아의 시카르에 있던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달려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하고 알렸다. 여인의 말을 듣고 모여들었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묶으시게 하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 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하고 말하였다.(요한 4,1-42, 참조)

조선후기 천주교가 전파되었을 때 사람들은 천주교에 대한 갖은 모략과 흉측한 유언비어들을 들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신자들이 생겨남에 당혹감을 느끼었다. 도대체 나라에서 금하고, 사형까지 당해야하는 천주교를 그들은 왜 그토록 즐기게 믿고 있는 것일까!

마침내 사람들은 말로만 들었던 천주교 신자들을 직

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옳았다.”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저 시카르의 우물가 동네사람들처럼 이제는 그들이 참으로 진리의 증거자임을 알게 되었다. 순교자들이 보인 모범은 참으로 여러 가지였다. 악습과 악행을 버린 아름다운 삶, 열렬한 신앙의 고백, 너무도 감동적인 옥중생활의 사랑과 평화, 초인적인 인내와 극기 그리고 의연한 죽음을 맞이하는 숙연한 자세 등이었다.

조선시대 죄수들은 가족들의 옥바라지를 받지 못하면 옥중에서 굶어 죽기가 예사였다. 천주교 신자들도 죄수처럼 굶주려 죽어갔다. 그러는 중에 사형이 집행되면 사형집행일에 마지막으로 그득히 밥상을 차려 먹이는 관례가 있었다. 굶주리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밥은 더할 수 없이 소중하지만 그것이 죽음을 알리는 마지막 밥상임을 아는 사형수들은 참아 그 밥을 먹지는 못했다. 사형집행하는 날 주어지는 마지막 밥상이 될 뿐이다. 그런데 순교자들이 보여준 이 마지막 밥상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달랐다.

덕산(德山)고을의 양민(良民)집안에서 태어난 정 베드로는 성격이 격렬하고 힘이 비상하여 모두가 그를 무서워하였다. 그러나 그가 주문모 신부를 만나 성체성사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된 후에는 양처럼 온순하고 겸손해졌으며, 친절하게 이웃을 도우며 부지런히 자신의 책

무를 다했다. 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는데, 1789년경 관아에 끌려가 신문과 고문을 받을 때도 그 얼굴에 조그마한 동요의 빛도 없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용감히 천주를 증거하였다. 그리고 옥중에 함께 있는 동료들을 격려하며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마침내 정 베드로도 동료들과 함께 사형집행일에 마지막 밥상을 받았다. 망연히 눈물을 흘릴 뿐 아무도 그 밥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그는 말했다. “마지막으로 천주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음식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먹어야 하오. 그런 다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릴 거요.” 그는 동료들을 격려하며 담담히 마지막 밥을 먹고 참수(斬首) 당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60세였다.

방 프란치스코는 감사의 비장이었다. 그가 어떻게 입교하였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 그의 비상한 열심은 교우들 가운데 뛰어났으며 순교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1798년 홍주(洪州)에서 잡혀 관직을 박탈당하고 6개월 동안 감사의 비장이였기에 더욱 형벌을 당해야 하였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그의 전 신앙생활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그때 그와 함께 사형선고를 받은 교우들이 옥에 있었는데 관례에 따라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식사를 그들에게 가져다주었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방 프란치스코는 기쁨에 빛나는 얼굴로 천주와 성모마리아께 감사를 드리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것도 천주의 은혜이지만, 사또가 이렇게 후한 대우를 해주는 것도 섭리의 은혜인데, 어째서 당신들은 슬퍼하고 풀이 죽어 있소.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오. 만약에 우리가 천당을 얻을 이렇게도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나중에 또 어떤 기회를 기대할 수 있겠소?” 눈물을 흘리던 두 동료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나약을 뉘우치고 참 신앙만으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거룩한 영적 희열을 함께 하였다.

그들 셋은 다같이 1799년 1월 홍주에서 순교하였다. 순교자들이 죽음의 순간에 보여주던 거룩한 모습들이 보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였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밥상을 대하는 순교자들의 의연한 신앙자세는 바로 신앙인이 간직하고 있어야 할 뚜렷한 생사관의 귀감이 아닐 수 없다.

알 림

»사목국

소공동체장 연수

소공동체장 연수가 아래와 같이 지구별로 개최됩니다.

각 본당 소공동체장들께서는

본당을 통하여 신청하신 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구	일 시	장 소
마산지구	10월 28일(목) 오후 1시~4시	구암동성당
창원지구	10월 7일(목) 오후 1시~4시	양곡성당
진주지구	11월 4일(목) 오후 1시~4시	거제성당
통영지구	10월 21일(목) 오후 1시~4시	상평동성당

참가비 : 1인 7,000원

준비물 : 필기도구, 개인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월호

신 청 : 교구 공문 참조하여 본당을 통해 신청

문 의 : 055) 249-7021~3

»가정사목국

제348차 가나혼인강좌

일 시 : 2010년 10월 17일(주일) 13:00

장 소 : 마산교구청 강당

대 상 : 혼인성사를 앞둔 미혼 남녀

문 의 : 055) 249-7028~9, Fax. 249-7100

신청서는 각 본당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Fax로 보내시면 됩니다.